

COLUMN 2 여유 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

도쿄-상냥한 대도시?

데이비드·심 켈 아키텍트 파트너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인간 중심의 지역 만들기」를 제창, 도시 디자이너로서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펜하겐을 비롯, 뉴욕, 시드니, 멜버른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모두 거리의 표정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나는 도쿄를 방문할 때마다 이 세계 최대의 도시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상냥한 거리인 것에 매료됩니다. 도쿄의 상냥함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밸런스에 의한 것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이면서 효율적인 대중 교통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입니다. 하지만 나는 빈번하게 오는 전철이 모두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승객들의 예의 바른, 역구내 화장실의 청결함 등,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도쿄를 이 정도 매력적인 거리로 만드는 것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며 커뮤니티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건물의 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들은 원조 「공유 스페이스」입니다.

그 유사자적인 공간은 차나 오토바이보다 인간을 우선시 해 줍니다. 또한 재해시에는 자연스럽게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 돕는 힘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쿄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손자를 돌보면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는 활동적인 노인들을 위해 거리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들도 커뮤니티와 소통하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리는 무엇이 가능할까. 대답은 휴먼 스케일이죠. 보도나 벤치, 가로수, 자전거용 레인 등, 인간의 시점을 고려한 디자인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먼 스케일과 함께 하는 상냥한 대도시·도쿄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2



3

①자전거 중심의 거리 만들기 / 코펜하겐
②보행자 중심의 거리 만들기 / 뉴욕 타임스 스퀘어
③상점과 주택이 공존하는 거리 / 도쿄도 가구라자카



스웨덴·마르메시